

“전통문양의 세계로 초대”

국보 214호 홍왕시명청동제은입사향완 등 전통공예품에 담긴 한국문양의 아름다움이 생생한 디지털 사진으로 되살아났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4일 전통문양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총정리한 <한국전통문양·금속공예·입사>를 펴냈다.

기본편·활용편 등 2권의 책과 한 장의 CD로 구성된 이 문양집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이뤄져 오던 전통문양의 체계화를 통해 문화상품개발을 위한 소재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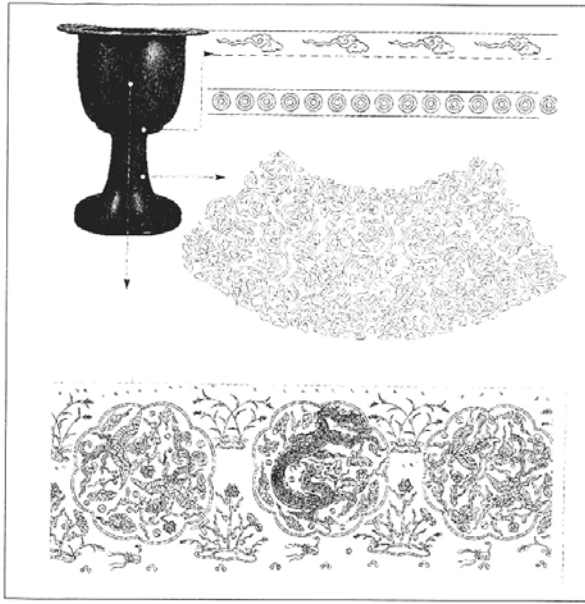
기본편은 금속공예품의 시대적 개발을 통한 각 유물의 사진과 유물에 시문된 문양을 최대한 정확하게 재현했고, 활용편은 범자·만자·용·당초 등 문양을 소재별로 분류, 이에 대한 정리 및 재디자인, 그리고 패턴화과정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리했다. 특히 문양을 컴퓨터로 분석, 기하학적 데이터로 재창조했으며, 유물 한

중앙박물관, 책·CD로 발간

고려문양 불교적 색채 짙어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활용

점마다 모든 방향에서 바라본 사진과 컴퓨터 파일을 수록하고 있어 곧바로 실생활과 디자인에 응용할 수도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전통문양은 금동제은입사병 등 삼국·통일신라 시대의 금속공예품 6점, 풍도사명 청동제은입사향완 등 고려시대 입사공예품 18점, 부석사명철제은입사향완 등 조선시대 금속공예품 38점 등 지난해 입사공예특별전에 출품했던 62점의 유물에 시문된 것들로 대부분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들이다. 특히 고려시대의 문양은 통일신라나 조선시대에 비해 불교적인

색채가 두드러진다. 1177년에 제작된 표충사 향완과 풍도사 정병 등의 용문양과 인도 고대문자로 향완의 주된 문양으로 자주 등장하는 범자문양은 그 대표적인 예. 이밖에 연꽃문양은 당초와 결합된 연화당초문양, 연꽃잎을 둘러 장식하는 연관문양 등 다양한 형태로 배열되고, 만자(卍)문양과 불교의식구의 일종인 여의두문은 보조문양으로 종종 사용된다.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실 박현택실장은 “불교적 색채가 짙은 우리나라의 입사공예문양은 문화시대를 대비한 문화상품 개발과 한



◇홍왕시명청동제은입사향완(국보 제214호)의 부분별 문양 모습.

국적인 고유디자인 창출을 위한 모티브발굴에 더없이 좋은 소재”라며 “옛 문양의 아름다움을 오늘로의 것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와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기석 기자(gsyoon@buddhapia.com)

불심시심 (136)

자연은 이웃을 살지운다

- 洞府深深隔世塵 깊고 깊은 마을 세속 먼지 막혔지만 (동부심심격세진)
- 晚晴風物亂撩人 늦게 개인 풍물이 사람 어지럽히네 (만정풍물난요인)
- 鸞姿蝶袂花顏美 피꼬리 나비 꽃자 꽃 얼굴이 아름답고 (영초접협화안미)
- 燕掠蜻蜓水面颯 제비 잡자리 채자 물 낚이 찡그린다 (연락정수면빈)
- 定裏關心詩久廢 선정으로 마음 돌려 시 짓기 잊었다가 (정리관심시구폐)
- 興中揮筆句還新 흥겨워 붓 드니 글귀 오히려 새로워 (흥중휘필구환신)
- 奇觀最好春歸後 좋은 구경거리란 봄 지난 뒤가 가장 좋아서 (기관최호춘귀후)
- 岳色溪光富四隣 산 색깔 시내 빛이 온갖 이웃 살지운다 (악색계광부사린)

무경대사의 시이다. 백운암(白雲庵)에서 지은 시이다.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시흥을 멈추지 못하는 시인의 고백이다. 처현의 기흥부터 착의의 시상이 재미있다. 깊은 골이 세속의 먼지가 막혀 있어 사람의 삶에 시끄러움이 없어야 하긴 만, 여기서는 오히려 자연 풍물이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이 다. 저녁나절의 개인 날씨가 사람들을 유인하여 괴롭힌다는 것이다. 이 즐거운 괴로움, 이것이 바로 속세의 삶과 다른 것이다. 승연에서의 수사는 일상을 초탈한다. 피꼬리에 꽃기기는 나비는 꽃잎이 되어 그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이다. 나비가 꽃잎으로 변했다. 피꼬리에 물러 있는 나비를 연상해 보라. 그 아름다움이 상상된다. 수면 가까이 앉아 있는 잡자리를 채는 제비, 그 순간 실랑이는 물무늬, 이를 물낚이 찡그린다 하였다. 피꼬리에 꽃기는 나비는 꽃잎이 되어 아름답고, 잡자리를 낚아채는 제비, 그 날렵한 자세에 수면은 찡그린다. 물찬 제비란 말이 있지만 이는 제비의 날개를 말하는 것이지 수면으로서는 귀찮은 일이다. 스님으로서 참선에 몰두하다 보면 이러한 사물을 살필 기회도 잃었기에 시를 짓는다는 생각도 못하겠지만, 그래도 흥에 이기지 못해 붓이 절로 춤을 추니 그 시구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 사물의 실상을 해안적 투시력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재료를 진실로 재구성하는 것이 시인의 몫이기에 이러한 시어에서 느끼는 신선한 정감이 독자의 시선을 끄는 것이다. 시인이나 스님으로서야 가난이 어떤 속성일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정관은 오히려 온 주변을 풍요롭게 변화시킨다. 이 풍요가 진정한 부자인 것이다. 이종찬 <통국대 교수>

패션에 나투신 지장보살님

이기향교수 미술의상초대전서 선보여



◇지장보살 패션 드레스.

IMF로 모두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 중생들의 가벼운 하소연을 들어서일까, 지장보살님이 패션으로 되살아났다. 불화의 이미지를 패션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이기향교수(한성대 의류직물학)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호텔 롯데월드에서 개최되는 제17회 국제복식학회 미술의상초대전에서 지장보살과 연꽃을 이미지화한 드레스 '그 한몸으로 끝없이 나투시니'를 선보인다. 김정 견노방으로 만들어진 이번 드레스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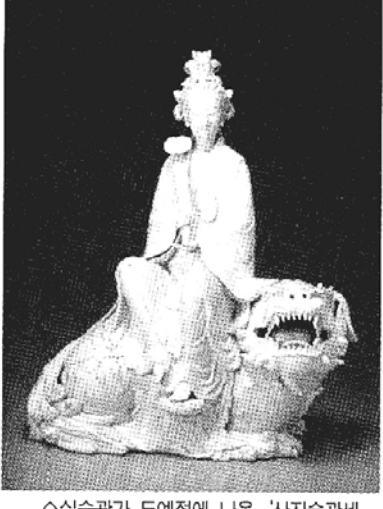
슴속에는 지장보살님이 단청문양을 배경으로 자비로운 미소로 현현하고, 치마는 파도문양위에 연꽃과 연잎이 그림과 자수로 화려하게 수놓아졌다. 고려불화를 보듯 화려하면서도 일견 은은한 품위가 느껴지는 이기향교수의 지장보살 드레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와 복식학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이번 국제복식학회의에서 한국 고유성을 살린 이색 미술의상으로 눈길을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경숙 기자(gjslee@buddhapia.com)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한국전시실 '개관'

덴마크 국립박물관에 유럽 최대규모의 한국전시실이 최근 개관했다. 외교통상부는 5일 덴마크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문화재 1천3백21점 중 3백여점을 전시하는 한국실을 마련, 성황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시실에는 15~17세기 불상, 고려시대 청동유물,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등 도자기 1백여점, 19세기 풍속화, 전통한복, 한복 등 다양한 유물이 선보이고 있다. 이들 문화재는 20세기 초 한국에 머물렀던 오이센과 야콥슨씨 등 덴마크 인사들이 기증한 것이다.

사자승관음보살상 '백미'

심수관가 도예전 8월 10일까지 일민미술관



◇심수관가 도예전에 나온 '사자승관세음보살좌상' (43cm×37cm).

정부수립 5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개최되는 '4백년만의 귀환-일민속에 꽃피운 심수관가 도예전'이 8월 10일까지 서울 일민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심수관가는 1598년 정유재란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조선 도공의 후예로 일본에서 4백년동안 우리의 성과 조선도공의 예술혼을 이어오면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도예의 명가. 이번 전시회에서는 초대 심당길부터 14대 심수관에 이르기까지 4백년에 걸쳐 만들어진 도예작품 140점이 선보인다. 이중 8대 심당원이 만든 '사자승관세음보살좌상'은 온기가 느껴지는 상아색으로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표정과 유머러스한 사자의 얼굴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조형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이번 전시의 백미로 꼽히고 있다. 이경숙 기자

초조대반야경 '제상박으로'

개인소장본 1046년 묵서 두루마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초조대장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발견됐다. 사진은 이번에 공개된 <초조본 대반야경> 권 568의 앞부분. <국제신문 제공>

11세기에 간행된 <초조본대반야라밀다경·이하 대반야경> 권 568이 원형 그대로인 두루마리 형태로 발견됐다. 고문서연구가 손창규(53·부산 동래구 온천동 707)씨가 7일 공개한 <대반야경>은 두루마리 관본으로 길이 11.5m, 너비 25.2cm의 크기. 두루마리를 이어간 낱장은 모두 23장이며, 끝자는 획 끝이 살아있고, 낱장 연결상태가 양호해 판각하자마자 찍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반야경> 끝에는 김해부(金海府) 호장(호족)으로 예원사(중주원 종2품) 벼슬을 지냈던 허진(許珍)이 중희(重熙)15년(1046)에 임금과 모친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는 묵서가 필사돼 있어 최소한 1046년 이전에 찍어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반야경>을 감정한 부산교육대 이신성교수(국어교육학과)는 "이번에 공개된 초조대장경 두루마리는 보존상태가 지극히 양호할 뿐만 아니라 첫장이 24행14자, 다음장이 25행14자이며 각기(刻記·경관을 새긴 연대)를 명시하지 않는 등 국보로 지정된 초조대장경과 비교해 조금도 다름이 없다"며 "초조대장경 진품본본이 확실한 국보급 문화재"라고 밝혔다. 윤기석 기자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을 쉽게 풀어쓴 새로운 경전 이야기!

다시보는경전①

유마경 이야기

慧 謙 스님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를 것입니다.

'나의 병은 중생이 아프기에 생긴 병입니다. 내 병은 중생이 고뇌에서 벗어나는 날 나를 것입니다.' 중생과 자기를 동체대비시니 유마의 말이다. 나와 내가 하나되고 없는 자와 가진 자가 하나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되어 서로의 장벽을 허무는 것, 이것이 유마경사의 법이다.

신국판 240쪽 / 값 6,500원

다시보는경전②

관음경 이야기

東 峰 스님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마하살을 가까이 하라. 관세음보살을 늘 마음 속에 생각하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염하라. 그러면 늘 평안하리라.

언제나 행복하리라. 두려움이 없으리라. 관세음보살이 되라. 관세음보살과 그대가 하나가 되라.

신국판 180쪽 / 값 5,500원

신간!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천오백만 불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불교 명언집!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

석성우·석지현 스님 엮음

금세기 대표적 청정 율사이신 석성우 스님과 詩人 석지현 스님께서 경전을 읽으면서 모은 감동적인 불교 명언들!

하루 한 구절 부처님 말씀 300가지! 1년 365일이면 당신도 훌륭한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적시는 부처님 말씀 300가지>는 불교의 여러 경전과 조사 선지식들이 남긴 말씀 가운데서 주옥 같은 명언을 뽑은 것입니다. 이 책은 지성하게 들끓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한 부처님 품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46판 양장 / 값 5,000원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